

---

## 어른이 지운 ‘어린이’

---

송 현 지

“선생님. 저는 잼민이니까 한 번 봐주세요.”

수업 중 어린이가 나에게 직접 한 말이다. ‘잼민이’ 라는 단어는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어린이를 미성숙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존재로 보고 그 행동을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어른에게도 사용한다. 전형적인 어린이 혐오 발언이다. 인터넷상에서 단순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두고 “너 잼민이냐?” 하는 말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퍼진 혐오성 단어는 어린이 집단에까지 스며들어 어린이가 자신을 잼민이라 칭하기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각종 매체의 자막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0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썩 좋지 못한 말에서 출발한 말이다. 이러한 명명은 ‘어른’ 에게서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을 분리하여 어린이에게 이 개념을 고착한다. 특정 집단에 불완전함을 고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뜻은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뿐 누구도 관심과 보호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회에서 퍼져 어린이를 어른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게끔 하고, 결국 어린이를 사회에서 쉽게 지워버린다. 그러나 어린이보다 어른이 완벽하다는 어른의 오만으로 어린이의 목소리를 지워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언제까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어찌면 어른보다 더 직감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쁜 어린이도 있겠지. 그러나 ‘모든’ 어린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혐오적 발언이 위험하다.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는 혐오적 발언이 모든 어린이를 향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집단이 되고, 그렇게 사회에서 지워진다. 혐오가 그 지우개를 만연하게 했다. 누가 어른에게 어린이가 쓴 답을 지워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가.

어린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은 좋아하는 아이러니한 경우를 많이 본다. 친구에게 “잼민이냐?” 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사용하는 동시에 아기들의 귀여운 모습이 담긴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 어른들의 이중성에 참을 수 없는 이질감을 느낀다. 어린이들의 정제된 귀여운 모습은 기꺼이 감상하면서, 공공질서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린이가 저지르는 실수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민폐를 주는 성인 남성의 행동에는 한마디 하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어린이의 실수와 엄마의 대처에는 쉽게 짜증을 드러낸다. 도저히 그 모순이 이해되지 않는다. 상대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서면, 아무렇지 않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 어린이들이 울지 않고 어른만큼이나 감정 조절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위선이다.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른인 나도 내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순간이 있다.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오죽하겠는가. 상황이 싫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티내고 표현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혐오다.

언어의 전파성을 생각할 때 사용하지 않아야 할 단어에 예민한 지적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말은 그 시대를 담는다.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사람들은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 말을 내뱉는다. 어린이를 혐오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결국 그 말이 어린이를 사회에서 지워버릴지도 모른다. 아이 하나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마을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조금 더 살아본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서투름과 느낌을 존중하고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아동 학대도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어린이가 궁극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는 존엄하고, 어른이 함부로 폭력을 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함부로 해도 되는 약자가 아니라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 출발한다. 어린이에 대한 혐오의 말이 멎고, 어른과 어린이가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가 줄어들 것이다. 아동 학대는 아이를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가장 각박할 때 향하는 혐오의 말은 사회에서 누가 약자인지를 보여준다. 방정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어린이’라 높여 부르는 일이었다.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어린이를 ‘사람’으로 대접하기 시작한 지점에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어른이 어린이를 지웠다. 그 공백에 혐오의 말이 자리하게 했다. 모든 것이 원점이다. 어린이 혐오를 막기 위해서는 혐오의 단어가 아프게 들리는 사람들이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의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어린이가 혐오의 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